

부단장 최경주 “한국선수가 팀 승리 주역되길”

프레지던트컵 오늘 개막

“인터내셔널 팀 분위기 좋아 이번이 미국 이길 절호의 기회” 안병훈·임성재에 온 힘 쏟아

“이번이 미국을 한번 이겨볼 기회다. 기왕이면 한국 선수가 팀 승리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힘을 쏟고 있다.”

유럽을 뺀 세계 각국 선수가 모인 인터내셔널 팀과 세계 최강 미국이 대결하는 대륙간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서 인터내셔널 팀 부단장을 맡은 최경주는 양 팀 부단장 7명 가운데 가장 바쁘다.

부단장은 인터내셔널 팀이 4명, 미국 팀은 3명이다.

대회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 클럽에서 안병훈과 임성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최경주가 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최경주는 안병훈, 임성재와 함께 코스에서 살다시피 했다. 드라이빙 레인지와 연습 그린에서도 최경주는 두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를 특유의 매서운 눈매로 지켜본다.

대회를 하루 앞둔 11일에도 연습 라운드를 동행한 최경주는 “두 선수에게 가능하면 많은 힘을 직접 돌아보라고 했다. 아마 양 팀 통틀어 코스를 가장 많이 돌아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주가 두 선수에게 유난히 공을 들이는 이유

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프레지던트컵에서 인터내셔널 팀은 미국에 10번 졌고, 한번 비긴 절대 열세다. 단 한 차례 승리한 1998년 대회에서 열린 곳이 바로 올해 대회 코스인 로열 멜버른이다.

최경주는 “팀 분위기가 아주 좋다. 한번 이겼던 코스에서 열리는 데다 팀 단합이 어느 때보다 잘 돼 있다”고 귀띔했다.

최경주는 안병훈과 임성재를 코스로 계속 내모는 이유를 “우리 인터내셔널 팀에서 핵심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임성재는 로봇처럼 오차 없이 친다. 안병훈의 기량은 이번엔 제이스 데이 대신 뽑을 만큼 단장 아니 엘스도 인정한다. 다만 실제 경기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샷을 하려면 코스를 꿰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병훈과 임성재는 인터내셔널 팀 12명 가운데 상위 6명에 든다는 게 내 판단”이라면서 “둘이 이번 대회에서 인터내셔널 팀이 이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해내도록 돕는 게 내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단장을 맡은 최경주의 역할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선수 관리다. 프레지던트컵 부단장의 역할은 오는 도쿄 올림픽 감독직 수행의 리허설 성격도 있다.

그는 “문화, 관습, 언어가 다 다르다. 그걸 이해시키고 하나의 팀으로 묶는 게 부단장으로서 내 역할”이라며 “(도쿄 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부단장(오른쪽)과 임성재가 1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9 프레지던트컵 연습라운드에서 1번홀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의 독주 계속될까 여자 기성 타이틀 도전

17일 김채영과 결승 3분기 대결



한국 여자바둑 역사를 새롭게 쓰는 최정(사진)이 이번엔 여자 기성 타이틀에 도전한다.

여자바둑 세계 최강자인 최정 9단은 17일 열리는 제3회 한국제지 여자기성전 결승 3분기 1국에서 김채영 5단과 대결한다.

2국은 23일, 3국은 24일 각각 열린다. 앞서 최정은 9일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김혜민 9단을 제압했고, 김채영은 10일 저녁 열린 준결승에서 권주리 2단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올해 마지막 여자대회 결승에서 맞붙는 최정과 김채영은 그동안 결승에서 두 번 만나 한 번씩 우승을 나눠 가졌다.

첫 대결이었던 지난해 1월 여자국수전 결승에서 최정이 2-0으로 승리했고, 지난해 7월 제1회 오정원배 결승에서는 김채영이 2-0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상대 전적은 최정이 13승 2패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최정은 오정원배 결승에서 2패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 김채영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올해 최정은 초절정기를 보냈다.

제10회 공룡산병성배와 제2회 오정원배를 석권하며 두 번의 세계대회 정상에 오른 최정은 국내대회에서도 제24기 하림배 여자프로국수전에서 우승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최정은 지난해 10월 제23기 하림배 결승 1국에서 이슬아 5단에 패한 뒤 국내 여자기사들을 상대로 파죽의 45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정이 여자기성 타이틀도 차지해 올 연말 4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김채영이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킬지도 관심사다.

최정은 준결승에서 승리 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반면 김채영은 “최정 9단을 상대로 최대한 힘들게 하는 대국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3회 한국제지 여자기성전 우승 상금은 3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다. /연합뉴스

‘코리언 듀오’ 안병훈·임성재 선봉에

헤드윈·스콧과 짝 이뤄 포볼 경기 나란히 출격

대륙간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 처음 출전하는 ‘코리언 듀오’ 안병훈(28)과 임성재(21)가 첫날부터 인터내셔널 팀 선봉에 선다.

인터내셔널 팀 에이스(남아공) 단장은 12일 오전에서 치르는 포볼 경기에서 안병훈과 임성재를 나란히 출전시킨다고 대회를 하루 앞둔 11일 밝혔다.

포볼은 2명의 선수가 저마다 각자 볼을 쳐 더 나은 쪽 스코어를 팀 성격으로 삼는 방식이다.

임성재가 먼저 애덤 헤드윈(캐나다)과 짝을 이뤄 미국의 젠더 셔플러-패트릭 캔틀레이와 맞붙는다.

임성재는 이날 헤드윈과 함께 연습 라운드를 돌았다.

안병훈은 인터내셔널 팀의 에이스 격인 애덤 스콧(호주)과 파트너가 돼 브라이슨 디샬보-토니 피나우와 대결한다.

단장과 선수를 겸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포볼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저스틴 토머스(미

국)와 짝을 이뤄 출전한다. 인터내셔널 팀은 마크 리슈먼(호주)과 호아킨 니만(칠레)이 타이거-토머스에게 맞선다.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과 판정중(대만)은 ‘말썹꾼’ 패트릭 리드와 웨브 심프슨과 대결한다.

12일 포볼 5번째 경기인 루이스 우스트히즌(남아공)과 에이브러햄 앤서(멕시코)가 더스틴 존슨-게리 우들랜드와 치른다.

인터내셔널 팀에서 리하오통(중국)과 캐머런 스타미스(호주), 미국팀에서는 맷 쿠처와 리키 파울러가 첫날 경기를 쉰다.

다음은 12일 포볼 경기 조 편성. ▲마크 리슈먼(호주)-호아킨 니만(칠레) : 타이거 우즈-저스틴 토머스

▲임성재-애덤 헤드윈(캐나다) : 젠더 셔플러-패트릭 캔틀레이

▲애덤 스콧(호주)-안병훈 : 브라이슨 디샬보-토니 피나우

▲마쓰야마 히데키(일본)-판정중(대만) : 웨브 심프슨-패트릭 리드

▲루이스 우스트히즌(남아공)-에이브러햄 앤서(멕시코) : 더스틴 존슨-게리 우들랜드 /연합뉴스

남자배구 올림픽 아시아예선 최종 엔트리 14명 확정

대한배구협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에 참가할 남자 배구대표팀 최종 엔트리(14명)를 확정했다.

배구협회는 11일 14명의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2020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장먼시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남자 아시아대륙예선에 참가한다.

8개국에 참가하는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야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

임도현 감독은 ‘최정예 대표팀’을 구성하고자 고민했고, 베테랑과 신예를 섞은 대표팀 명단을 완성했다.

세터는 베테랑 한선수(대한항공)와 젊은피 황택의(KB손해보험) 등 두 명이 맡는다.

정지석과 광승석(이상 대한항공), 전광인(현대

캐피탈), 나경복(우리카드)이 레프트를 구성하고, 센터진은 신영석, 최민호(이상 현대캐피탈), 김재휘(상무), 김규민(대한항공)이 센터로 높이를 책임진다.

박철우(삼성화재), 허수봉(상무)은 라이트로 뛴했다. 리베로 두 명은 정민수(KB손해보험)와 이상욱(우리카드)이다.

2019-2020 V리그에서 부상으로 고전하는 문성민(현대캐피탈)은 빠졌다.

임도현 감독은 “이란, 호주 등 강팀이 있지만, 올림픽 티켓을 포기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은 22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시작하고 내년 1월 5일 오전 중국으로 떠난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12월14일(토)
▲광주호산회 12월14일(토) 옥정호봉어섬조깅 물안개길 트레킹,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2월15일(일)
▲광주전남산악회 12월 15일(일) 부안 우금산 산례봉(650m), 월드컵주차장 07:00, 운진각앞, 양동시장, 광주역

07:30, 두암동 흥플러스 07:40, 농산물공판장 앞 ※다음카페 광주전남산악회 ☎ 010 4615-5810, 010 5378 5702

▲한길산악회 12월 15일(일) 전남 고창 방장산 산행, 상무정 07:00 무각사 07:10 광주역(e-마트 편의점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 07:40 ※다음카페 :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2월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18일(수) 전북 진안 덕태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 21일(토) 전남 담양 용마루길및 비내산 송년산행, 봉선동 롯데슈퍼앞 7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7시20분, 영주체육관 7시30분, 한국병원 앞 7시40분, 문예회관 후문 7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시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광주호산회 12월21일(토) 전주 모악산,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

12월22일(일)
▲광주자연보존동사회 12월22일(일) 연화산(경남 고성), 06:40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동 흥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존동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2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2월25일(수) 전남 나주 다도식산 송년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2월28일(토)
▲광주호산회 12월28일(토) 송년산행 화순운주사 천불전탑 및 외불산행,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2020년 1월1일(수)
▲광주토요산악회 1월1일(수) 새해 해맞이 여행, 완도를 남방산(수인사), 05:00 광주역, (문예후문 경우)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 010 3608 4267

▲광주kj산악회 1월1일(수) 신년특별해돋이트레킹산행, 영주체육관 02:00, 백운우체국 02:05, 돌고개 02:10, 롯데백화점 02:15, 광주역 02:20, 문예후문 02:30, 비엔날레주차장 02:35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즐거움 문화상책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 시대의 얼굴	12.5.(목)~31.(화)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19.(목)~ 21.(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9회 정기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12.26.(목)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